

# 광주·전남 신천지 신도 5만명 전수 조사

### 정부, 신천지 전체 신도·연락처 받아 관찰서 감염 확산 시·도, “공무원 총동원해 명단 확보 즉시 대응 나설 것”

광주시와 전남도가 5만명이 넘는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받아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평형 광주시복지건강국장 등은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신천지 신도에 대한 명단이 오면 곧바로 시·도 본청 직원 1300명을 총동원해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광주에서 활동 중인 신천지 신도(예비신도 포함)가 3만명이 넘는 만큼 신속한 전수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청 각 실·과별로 명단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신도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신천지 측으로부터 광주 신천지 교회 신도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114명(확진자 4명 포함)의 명단을 받았으며, 이 중 신천지 대구 교회 예배를 다녀온 신도 4명과 가족 등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조치됐다.

또 48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며, 48명은 비접촉자로 분류하고 매일 2차례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신도라는 사실을 부정해 확인 작업 중이다. 이 가운데 증상이 있는 17명을 검사해 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14명은 대구 예배에 참석한 광주 신도

와 그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성이 의심되는 신도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신천지 측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확진자와 대구 예배에 참석했거나, 함께 교육을 받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신도의 명단을 받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전남도도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본청 직원을 동원해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천지 정식 신도는 총 4만 991명이다. 광주 북구 오치·송하동 2개 교회에 다니는 신도만 2만6715명에 이르며, 전남에서는 목포·여수·순천·광양 지회 소속 신도가 1만 4276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복음방·선교센터에 다니는 교육생인 ‘예비’ 신도는 광주 5378명, 전남 4118명 등으로, 광주·전남에서 신천지 관련 신도는 총 5만487명이다.

앞서 이날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총회장님

특별편지’를 내고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생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를 유지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자”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다. 특히 대구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날 오전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의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며 전국의 신천지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받아 관찰 주수지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즉각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신천지 교육센터 CCTV 확보

### 시, 신원 확보 위한 영상 분석...17일 이후 예배 열리지 않아

광주시가 경찰과 공동으로 코로나19 관련 광주 신천지 신도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CC-TV 분석에 들어갔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 등은 지난 24일 경찰과 함께 광주 남구 주월동과 월산동에 있는 신천지 교육센터(공부방)를 방문해 CCTV를 확인했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될 곳이다.

보건 당국은 앞서 한차례 교육센터를 방문했으나, 주월동 교육센터 CCTV는 고장으로 2월 6일 이후 촬영분을 확보하지 못했고 월산동은 문이 닫혀 있어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임의제출 방식으로 주월동 교육센터에 있는 CCTV 저장 장치를 확

보해 역학 조사관에게 전달했다. 월산동에는 기기가 없었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저장 장치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 등으로 기계 고장이 맞는지, 최근 촬영분을 복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북구와 남구에 있는 신천지 광주교회 2곳의 CC-TV를 통해 지난 17일 이후 예배가 열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신천지에서 자체 폐쇄했다는 일부 시설에 사람이 왕래한다는 일부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회 2곳과 광주역 인근 센터 등 3곳에 상주 인력이 번갈아가면서 건물을 관리할 뿐 특이 동향은 없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담양군, 3월1일까지 모든 종교행사 금지 행정명령

담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1일까지 모든 종교행사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담양군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종교단체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내 22개 자치단체 중 종교행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곳은 담양군이 처

음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에는 불교 40개 곳, 기독교 67개 곳, 천주교 4곳, 기타 종교단체 12곳 등 123곳의 종교 관련 시설이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3월1일까지 종교행사를 금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월1일까지 해당 종교시설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



“손 세정제 받아가세요” 광주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25일 광주송정역에서 승객들에게 예방 수칙이 적힌 종이와 손 세정제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미국·대만·일본도 “한국여행 자제”

### 美, 처음으로 한국 3단계 여행경보...입국제한 24곳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국민에 한국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미국과 대만, 일본 등 평소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가 잇따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고 있어 관광, 숙박 등 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대구·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를 중국 전

역에 적용한 것과 같은 ‘레벨2’로 상향하고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호주는 지난 23일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3단계(총 4단계)로 올렸다. 뉴질랜드도 호주와 같이 대구·청도 3단계, 한국 전역 2단계로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4일 여행경보를 2단계로 조정했다. 이스라엘, 베트남, 이탈리아, 독일, 필리핀, 싱가포르 등도 한국이나 대구·청도 지역으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곳은 홍콩 등 총 24곳이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정보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 시민 불안감·가짜뉴스 차단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가짜뉴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해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코로나19 대응 임시 페이지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부터 현황, 선별진료소, 확진자 동선 등을 클릭한 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일 상황, 예방수칙 등 행동 요령, 선별진료소, 확진자 이동 경로, 취소·연기 행사 현

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할 확진자 동선 등 정보 공개 접근을 돕고 SNS ‘가짜 뉴스’ 등으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 수는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일 3만 3233명이었지만, 23일에는 9만787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확진자 동선이 공개된 23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관련 정보 등을 신속히 공유해 시민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나눔 광주정신 보여준 상인회에 감사”

### 이용섭 시장, 임대료 인하한 송정역시장 상인회 격려

이용섭(사진) 광주시장이 25일 1913송정역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점포 임대료 인하 등 나눔과 연대의 손길을 보낸 건물주와 상인들을 격려했다.

1913송정역시장상인회는 이번달부터 10~25% 범위에서 최대 4개월간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결정에는 25명의 건물주가 동참했다.

1913송정역시장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는 김영자 상인회 총무가 처음으로 본인 소유 점포 임대료 인하에 나섰고, 이를 범용 상인회장이 공론화하면서 시작했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은 이곳에서 40년을 지킨 건물주부터 신입 건물주까지 전달됐고, 총 25명이 나눔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상인회와 건물주, 상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 깊은 일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물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정신은 이타정신, 희생정신 등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1980년 5월 가장 어려운 와중에 주먹밥과 피를 나누며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나눔과 연대’가 광주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며 “이런 나눔과 연대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실천해준 1913송정역시장상인회와 건물주, 상인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태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0년 3월 13일(금) 16:00
2. 장 소: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중동) 해운빌딩 5층 본사 회의실
3. 보고사항
  - 1) 영업보고
  - 2) 감사보고
4.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제32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미지리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원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 운 업 2. 해운관련업 3. 중량물운송사업 4. 예 선 업 5. 선박관리업 6. 항만관련사업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8. 골재채취판매업 9. 부동산임대업 10. 육상 및 수상 운수장비 임대업 11. 항공 및 해상운송 운임업, 복합운송수선업 12. 육상 및 수상운수 유사서비스업 13. 화물취급업 14.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15. 수선 운송 지원 서비스업 16. 보안 및 창고업 17. 중량 물류업 18. 안전관리대행업 (수 가) 19. 전 관에 포함된 외국의 사업 20.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업체의 투자	(삭제)	1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20. 전 관에 포함된 외국의 사업 21.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업체의 투자
부 칙 1. (현행과 같음) 2. 이 정관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현행과 같음) 2. 이 정관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4호 의안: 상근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7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5. 실질주주의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광양선박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63(중동)  
각자대표이사 이경희, 김영근